

스포츠동아 · 오토헤럴드 · 지피코리아 공동기획 | 현대차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

마이티 전 구매고객 전담 주치의의 배정...고객서비스도 'Mighty'

〈강력한〉

전북 최강희 감독·이동국, 특별한 추억 선물

국내 최고의 스트라이커 이동국(프로축구 전북현대)이 22일, 중대형 트럭과 버스를 전문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가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과 함께 신형 마이티 출고 고객을 초청해 1박2일 동안 진행한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의 마지막 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최 감독과 이동국은 이날 올 뉴 마이티 사전 계약자들과 전북현대축구단 명예선수 위촉식을 진행했다. 유니폼과 사인볼을 증정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가한 올 뉴 마이티 가족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 "트럭 샀다고 이런 대접은 처음"

21일 시작된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에는 마이티 사전 계약자 50명과 가족 등 100여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첫 날 전주 한옥마을을 체험하고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전주공장을 방문해 올 뉴 마이티에 대한 제품 설명을 듣고 출고센터에 전시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차 모든 상품 모델을 직접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는 예병태 부사장(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과 전주공장 임직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지역 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대차가 고객들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큰 변화와 전주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하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유재영 전무(현대차 상용국내사업부장)에게 직접 신형 마이티의 키를 전달 받은 안성무(40·인천시)씨는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중형 트럭을 사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는 안씨는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를 방문하고 이동국 선수와 찍은 사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현대차가 중형트럭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이벤트는 발일 이유도, 전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마이티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며 앞으로 더 자주 직접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형트럭 50대가 동시에 출고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상용차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사전 계약된 것도 드문 일이고 한꺼번에 출시되는 것도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신형 마이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크고 좋다는 얘기다.

공동취재 : 스포츠동아 원성열 기자,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올 뉴 마이티 사전 계약자 50명 가족 초청 1박2일간 전주공장 방문 등 즐거운 시간 최강희 감독·이동국, 가족들과 기념사진

17년만에 풀체인지...편의성·안전성 UP 중형트럭 50대 동시 출고...국내 첫 사례 무상보증 수리기간 3년 20만km로 확대



1 현대자동차(주)가 21~22일 양일간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 뉴 마이티 계약 고객 50명을 초청해 전주공장에서 직접 신차를 전달하고,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투어 등 다양한 가족 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맨 왼쪽)과 이동국(맨 오른쪽)이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에서 참여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오토헤럴드

"디자인·경제성...기획부터 고객 입장 생각했다"

예병태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올 뉴 마이티는 현대상용차의 주력 모델이다. 현대차가 마이티에 쏟는 애정도 각별해 초기 개발단계부터 많은 공을 들였다. 예병태 본부장(사진)은 "올 뉴 마이티는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만든 제품"이라며 "디자인에서 성능, 편의성, 경제성까지 고객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마이티 II 출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인 풀체인지 올 뉴 마이티는 편의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실현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캡 차체에 고장력 강판을 37%나 적용했다. 4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해 제동성능도 뛰어나다. 또 언덕길 발전보조장치(BHS) 등 각종 첨단 안전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62.0kg·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 F엔진을 장착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인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기존

모델보다 연비도 크게 끌어올렸다.

획기적인 애프터서비스도 마련했다. 모든 마이티 구매 고객에게 전담 블루존스가 1:1로 관리하는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3년, 20만km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오직 올 뉴 마이티에만 적용된다.

"마이티만 3대째...트럭은 역시 현대차가 최고"

화물운송 20년차 베테랑 오광수 씨

부인과 함께 현대차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오광수(62·서울 상도동)씨는 개별화물운송만 20년을 해 온 업계 베테랑이다. 마이티만 3대째 구입했다는 오씨는 수입 중형트럭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단칼에 잘라 말했다.

"내 주변에 수입 트럭을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왜 마이티로만 3대를 바꿨는지도, 사다리도 해 봤고 탑차도 해 봤는데 마이티가 최고예요. 여기 저기 필요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도 쉽고요.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오요. 돈도 덜 들고 고치는 것도 현대차가 제일 빨라요." 20년 동안 마이티만 고집한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이 나온다. 옆에 있던 부인 김옥희(58)씨는 한 차원 다른 얘기를 꺼낸다. "이삿집 운송할 때 내가 따라 나서는 때가 많아요. 앉아 있기가 편해요. 아무리 오래 타도 자가용보다 편하죠."

현대차가 이날 진행했던 신형 마이티 상품 설명의 핵심 내용도 뚜렷하게 짚어냈다. 김씨는 "유로6 잘 알죠. 매연이 줄어 환경에 도움되고, 기름 덜 먹고, 환경 부담감도 안 내죠.

또 전담 주치의도 만들어 준다니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쉽게 결정해서 한 달 전에 계약서를 썼죠"라고 말했다.

전주가 고향이어서 모처럼 고향 향기에 취했다는 오씨는 "고장이 잦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났을 때 답답한 것이 없어야 해요. (서울) 동작구만 해도 현대차 서비스센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국산이 최고예요"라고 강조했다.

고직대가 올리는 가운데 이날 직접 전달받은 마이티를 몰고 서울로 향하던 오씨 부부는 현대차 전주공장 임직원들의 배웅에 엄지손가락을 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이티로 돈 많이 벌어 꼭 부자 될게요."



TRADITIONAL WELLBEING FOODS

행복한 시래기

24시

시래기 해장국 전문점






시래기 해장국 ₩4,500

국내 최초 토속 웰빙 시래기전문점!!

기다려다 드실 만큼 손님이 많습니다!!

가맹점모집: 1544-3733

착한 밥상! 자연 밥상! 건강한 밥상!

모든 재료는 본사에서 직접 공급!
소자본 창업!
무이자 창업자금대출!